

‘광주G-패스’ 교통카드 디자인 확정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시민 6012명 온·오프라인 설문 참여·전문가 자문 등 거쳐
광주문화관광 캐릭터 ‘오매나’ 교통수단 이용 모습 형상화
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비 어린이 무료...청소년·어르신 반값

광주시가 ‘광주G-패스(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디자인이 확정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광주온(ON) 설문과 오프라인 투표 등 시민 설문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광주G-패스 카드 디자인을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카드 디자인은 광주문화관광 캐릭터인 ‘오매나’가 다양한 교통수단을 타는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민선 8기 광주시가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온·오프라인 설문에는 광주시민 6012명이 참여했으며, 선호하는 카드 디자인을 선정하고 댓글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어린이용과 청소년용 카드는 캐릭터형으로, 성인용 카드는 글자형 카드에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어린이·청소년·성인 구분 없이 캐릭터형 카드에 선정하면 좋겠다는 시민 의견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광주G-패스 카드 디자인을 최종 확정했다.

광주시는 교통카드 디자인까지 확정됨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대중교통비를 할인·환급하는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광주G-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광주G-패스 카드는 시행과 동시에 편의점 등 한패이카드 지정 가맹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한 뒤 생년월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어린이·청소년용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어린이가 100%, 청소년은 50% 할인받게 된다.

19살 이상 성인에 대한 광주G-패스 지원은 K-패스와 연계해 추가 환급된다.

성인은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누리집(https://korea-pass.kr)에 회원 가입하고,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64%)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다.

백은정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광주G-패스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만든 시민의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광주G-패스 카드와 함께 대중교통



을 적극 이용해 교통비 부담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에도 동참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관광공사, 학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학회 사무국 대상 팸투어 진행... 5건 유치 성과

광주관광공사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주요 학회 사무국 대상 팸투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약리학회, 한국우주과학회 등 20여명의 국내 주요 학회 관계자들에게 광주를 학술행사 개최지로 적극 추천하기 위해 진행됐다.

광주관광공사는 이번 팸투어를 통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5건의 학회 행사 유치를 예약하는 성과도 냈다. 공사는 앞으로도 주요 학

회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광주의 MICE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광주관광공사 김진강 사장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짧게는 광주의 매력을 널리 홍보함과 더불어 마이스 유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면서 “특히 학회 행사는 타 지역 참가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많이 유치하면 할수록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자·보 도시 광주’ 국책연구기관과 실증 추진

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첨단 건설기술 업무 협약
광주연구원·테크노파크·기후에너지진흥원 등과 협력

광주시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첨단 건설기술 실증을 통한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 광주’ 실현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첨단 건설기술 실증 기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보유 중인

건설분야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증에 나서 광주 도시문제 해결 등 정책과제를 수행한다.

광주시는 광주연구원·광주테크노파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등 지역 연구·지원기관의 기술·인력을 지원하는 등 실증협력사업에 힘을 보탠다.

이들 연구·지원기관은 광주시와 협력해 ▲광주시 주요 정책과 연계한 실증협력사업 발굴·추진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 협력사업 ▲각 기관의 기술과 인력 지원 ▲광주시 기업지원을 통한 기술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등에 나선다.

광주시는 ‘대자보 도시’ 실현을 위해 보행환경 개선 등 현안과제를 발굴·시범 추진하고,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수질·환경 관리, 재난 안전 대응 등 주요 정책과제의 실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자보 도시를 구현해 가는 광주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품 시험능력 ‘우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 숙련도 평가서 모든 항목 양호 판정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4 식품·의약품 숙련도 평가’에서 모든 항목의 평가 결과 ‘양호’ 판정을 받아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숙련도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278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의 정확도에 따라 ‘양

호’, ‘주요’, ‘미흡’ 3단계로 판정한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식품,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평가에 참여했다. 평가 항목은 ▲식품의 잔류농약, 영양성분, 잔류오염물질, 재조합 유전자, 대장균군 ▲의약품 및 화장품의 기능성분 ▲위생용품의 중금속이다.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 등급인 ‘양호’ 판정을 받아 식품·의약품 분야의 시험·검사 능력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식품·의약품 숙련도 평가에서 5년 연속 검사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성과를 냈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측정분석능력을 높여 유류 식품·의약품의 철저한 검사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5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직무스트레스 해소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등 인정

광주도시공사는 “5년 연속 한국경영인증원 인권경영시스템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조직이 인권경영 방침과 목표 수립 실행을 위한 체계를 갖춰 적절하게 운영하는 지 등을 심사해 인정하는 제도다.

광주도시공사는 국제사회의 인권경영 이행 요구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발맞춰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인권경영 강화에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는 공사감정노동근로자 보호 가이드

라인 신설,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 사내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인권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

광주도시공사 김승남 사장은 “인권경영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고, 상호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권경영 확산을 적극 실천해 시민과 직원이 머물고픈, 함께하고픈 인권경영 선도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경진대회 우수상

병해충·농업재해 대응 ‘우수’

광주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4년 병해충·농업재해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병해충·농업재해 대응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을 발굴·시상하고,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와 긴밀한 재해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체계적인 병해충 예방과 방제시스템 구축, 신속한 농업기상재해 대응,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운영 등에서 높은 평

가를 받았다.

특히 올 여름에는 극심한 폭염 대응을 위해 ‘폭염 현장 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 농가에게 실질적 폭염 대응기술을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또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병해충 관리와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해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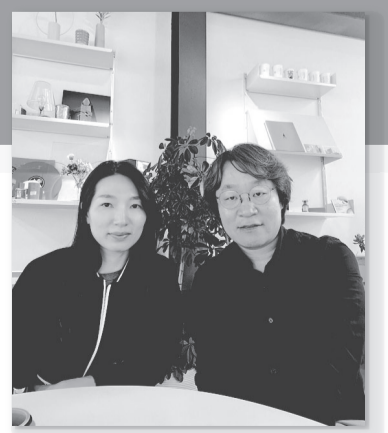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